

“대체제 소개해도 듣지않아... 수량확보, 장기대책 세워야”

Q 르포 | ‘타이레놀 품질 사태’ 약국 가보니

정부가 “타이레놀 복용” 언급에 판매량 급증 ‘품질 사태’ 빚어 약국마다 일단 100개씩 채워놔

정부가 전국 약국에 타이레놀을 100개씩 공급하면서 ‘타이레놀 품질 사태’가 진정되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후 복용하는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타이레놀 쏠림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급한 불은 끄었지만, 하반기 접종이 지속되는 만큼 장기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든 지적도 이어졌다.

◆타이레놀 수급 숨통 트어

16일 오전 기자가 방문한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 일대 약국들은 대부분 15~16일에 걸쳐 타이레놀을 공급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량이 충분한 약국들도 대부분 일단 100개를 채워놨다고 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타이레놀을 고

집한 영향이 컸다.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는 “타이레놀을 사러 온 어르신들께 대체제를 아무리 소개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품명을 언급한 것을 이해하지만, 해당 제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타이레놀 품질 사태는 정부의 발표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며 상품명을 언급한 이후 타이레놀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편의점 등에 공급된 타이레놀 물량은 2020년 4월 기준 약 3000만개에서 올해 4월 4900만개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뒤늦게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70여종을 소개하며 홍보에 나섰다지만 타이레놀 품귀



16일 오전 방문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 곳곳에 타이레놀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권소완 수습기자

마스크 대란같은 상황일까 두려워 일선 접종 현장에서 여전히 ‘타이레놀’ 복용 권고 하기도 현장안내 개선, 품귀사태 막아야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장기 수급대책 세워야

현재 정부는 타이레놀 제조사인 한국안선이 보유한 비축물량 500만개를 확

보해 전국 약국에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15일과 16일에 걸쳐 240만개가 풀렸고 18일부터는 추가로 약 26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공급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반면, 약사들은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장 모씨는 “수급 대란 조짐이 보일 때 서둘러 물량을 풀어야 했다”며 “뒤늦은 대책으로 타이레놀에 대한 갈

증만 높여 공적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약사 김 모씨는 “일선 접종현장에서는 여전히 접종 전과 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며 권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현장에서부터 사후 관리 안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품귀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이레놀을 추가 공급하면서 되레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 약사 임모씨는 “소비자들은 언제 또 타이레놀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타이레놀 쇼핑에 나섰다”며 “효과가 동일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찾던 소비자들도 다시 타이레놀만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접종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텐데 100개, 200개 단기 공급으로는 오히려 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차라리 타이레놀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장기 수급대책을 세우는 것이 쓸데 없는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권소완 수습기자 selee@metroseoul.co.kr

bhc치킨, 가맹점과 의견교환·소통 나서

전국 지역별 가맹 간담회 진행

bhc치킨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지역별 가맹점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bhc치킨은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사동점에서 임금옥 bhc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본사의 경영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bhc치킨은 이달 초부터 대전충청지역 소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광주전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경영 성과와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의견 교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본사와 가맹점은 올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객중시 경영과 운영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금옥 bhc치킨 대표는 “대의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두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며 “소비자와의 접점인 현장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는 가맹점 사업주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임 대표는 “bhc치킨은 앞으로 가맹점과 함께 더 큰 성장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가맹점 사업주는 “뿌링클, 콤포시리즈 등 대표 메뉴 외에도 신메뉴인 하바네로 포테이 후라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항상 제품개발에 힘써 주시는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사 경영방침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매출 상승에 효과를 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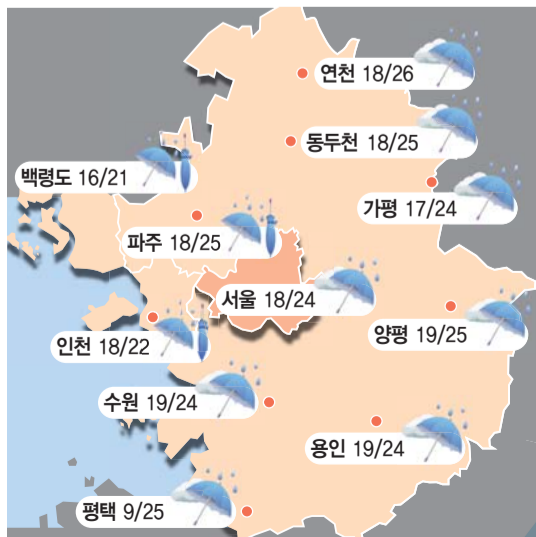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6월 18일 (금)
음력 : 5월 9일

수도권 날씨
18~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휴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심사 착수

하반기 유럽시장 품목허가 앞뒤 향후 3년 이내 59개국 진출 목표

휴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접수하여 심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휴젤은 2015년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FDA에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자사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의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제출

한 바 있다. FDA 발송 공문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다.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국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 내 자사 제품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수 전진 기지로 꼽힌다.

휴젤은 지난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 소재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제약사 크로마와 함께 미국 현지 자회사 ‘휴젤 아

메리카’를 설립, 현지 시장 수요 확대 및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앞서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중국 수출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휴젤은 향후 3년 이내 보툴리눔 독신 진출국을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보툴리눔 독신 수출국이 59개국으로 확대되면 휴젤은 약 5조 규모의 글로벌 독신 시장의 95%를 커버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3세대 B형 간염 예방백신 임상1상 승인

차백신연구소, 2023년까지 임상시험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세대 B형 간염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1상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차백신연구소의 B형간염 백신 CVI-HBV-002는 2014년 5월 치료백신을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아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2a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월에는 임상 2b상을 승인 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차백신연구소는 이 백신이 치료 목적 이외에도 예방백신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예방백신에 대하여 국내 임상 I

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차백신연구소의 B형간염 백신은 3세대 항원인 L-HBsAg과 면역증강제 L-팜포(pampo)를 포함하고 있다. 3세대 항원은 2세대 항원보다 면역원성이 높아, 이를 포함한 3세대 백신은 2세대 백신보다 월등히 효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 L-팜포는 다사 면역증강제보다 면역반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도한다. 현재 상용화된 2세대 백신은 80% 이상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무반응자’가 5~15% 보고되고 있다. CVI-HBV-002는 이런 무반응자군에서도 방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롯데리아 백신접종 고객 이벤트

롯데GRS 롯데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업계 최초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리아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약 350개 직·가맹점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매장 카운터에 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메뉴 5종을 약 30% 할인 할인 판매한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는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클래식치즈버거,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데리버거 등 총 5종의 메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